

크고 임팩트 강한 경영학회로의 도약!

-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회를 크고 빛나게 만들겠습니다.
- 임팩트 강한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결집하여 신선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 발로 뛰며 귀를 쫓긋 세우고 경청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위대한 한국경영학회 회원 여러분, 차차기 경영학회장 후보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장우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장 직을 수행 중입니다. 이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신규과정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맨발로 뛰고 많은 분들의 선의의 협조를 결집시켜 유치했습니다. 제가 한국경영학회장이 되면 「**결속의 힘**」과 함께 뛰어난 「**전통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신선한 「**변화와 혁신**」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경영학은 그 영역과 확장성이 무한하며, 시대와 사회와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영학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고 뛰어난 분들이 교수로 활동하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미스매치를 느끼며 삽니다. 기업들의 신음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영학자로서 적시에 분위기 반전의 임팩트를 가해야 됩니다. 저의 주장에 앞서 「**발로 뛰며 귀를 쫓긋 세우고 경청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전국의 경영학도들의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이러한 난제들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I. 학회 회원서비스, 글로벌 CEO 초청행사, 참여 형 문화행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원서비스 강화는 회원 개개인의 연구력 및 학회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합니다.】

1. 학회회원들께 「확장된」 오픈 데이터 플랫폼 제공

- 「Moaform (기본 무료), SurveyMonkey (유.무료)」 등과 서비스제휴를 체결하여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를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및 확보중인 각 대학의) 「Data Stream, CRSP, COMPUSTAT, NYSE TAQ data」 등도 (공급자와의 계약조건 하에서) 개방하겠습니다. 이는 학회가 추진해온 재무/회계 분야의 FnGuide, KIS Value, 마케팅 분야의 3대 이동 통신사 및 카드사 자료 활용에 대한 「**추가**」 서비스입니다.

2. 경영학연구의 「SSCI 등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 경영학연구의 SSCI 등재는 역대 회장님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편집위원장의 임기와 활동을 보장하여 경영학연구의 SSCI 등재를 앞당기겠습니다.

3. 경영학연구 논문 「게재 기회 확대」

- 하계 및 동계 학술대회 시 Call for Papers 행사를 강화하고 특별호를 증간하며, 산학연구에 대해 경영학연구 논문 게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4. 「글로벌기업 CEO 초청행사」와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형 문화행사」 수행
· 이를 통해 경영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그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II. 한국경영학회를 「크고 빛나게」 가져가겠습니다.

【경영학은 포용성과 확장성이 무한합니다. 경영학은 시대와 사회와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경영원리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1. 경영학회는 「점프」에 의한 「재도약」을 해야 합니다.
 -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참여학회 수를 40개에서 두 배로 「배가」시키겠습니다. 회원 수를 「배가」시키겠습니다. 학회 발전기금을 적극 조성하여 이월잔액을 「배가」시키겠습니다. 경영학회는 명실 공히 「국내 최대의 포용적」 사회과학 학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교를 더욱 든든히 만들어 나겠습니다.
2. 경영학회 「위상재설정」이 단연코 필요합니다.
 - 경영학의 「뿌리」는 기업과 경영현장에 있습니다. 각급 금융기관, 제조 대기업과 풀뿌리 산업인 중소기업의 숨소리와 땀 흘리는 「삶의 현장」을 담아내는 경영학회를 지향하겠습니다.
 - 학제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세부전공의 합류를 유도하여 우리 학회가 융복합연구의 「용광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III. 임팩트 강한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이는 경영학 본연의 속성에 충실한 경영학도가 힘써야 할 과제입니다.】

1. 풀뿌리 「경영현장을 대변」하고 적극적인 「정책제언」에 나서겠습니다.
 - 대기업, 중소기업, 각급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경영현장, 삶의 현장을 대변하고 적극 정책제언에 나서고, 경영학의 다양한 관점을 힘써 알리겠습니다.
2. 「현장중심」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등의 현장연구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책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경영학회는 저의 로망이요, 학문적 고향입니다.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학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고자 한국경영학회 차차기회장에 입후보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학회가 경영학적 「포용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전국적 힘의 결집과 단합된 도전」을 통해 「크고 임팩트 강한 경영학회로의 도약!」을 이루는 데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늘 「귀를 쫓긋 세우고 책임지는 자세로」 듣겠습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경영학회 차차기회장 후보 이장우 올림